

트럼프, 7조원 투입 미·캐나다 연결 다리 '개통 불허' 위협

“캐나다, 중국에 산 채로 먹힐 것” 노골적 경계

캐나다 칸이 “트럼프와 통화했다. 해결될 것”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 교량의 개통을 불허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본인 소유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캐나다에 제공한 모든 것을 보상받고 캐나다가 미국을 공정과 존중으로 대할 때까지 하반기 예정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원자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대교로,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아일스하키 선수 이름을 따 명명됐다. 47억 달러(6조8500억원)를 들여 2018년부터 공사가 진행됐으며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시물에서 이 교량의

나다와 중국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캐나다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는 10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칸이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한 사실을 언급한 뒤 “캐나다가 교량 건설비용을 40억 달러(캐나다 달러) 이상 지불했다고 당연히 설명했다”며 “또한 미 미시간주와 캐나다 정부가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디트로이트 지역 재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통 불허 위협에 우려를 표명했다. 디트로이트 지역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디 하우 국제대교는 미시간주 및 디트로이트 일대에서 동시대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를 저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역과 주, 그리고 국가 전체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아마존, 위성 4500기 추가 발사 승인

일본 마스코의 스페이스X가 장악한 위성인터넷 시장에서 아마존이 본격적인 주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아마존은 자사 자체도 위성 통신 서비

로부터 2세대 위성 4500기의 추가 발사를 승인받았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아마존 레오의 위성군은 총 7700기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아마존 위성들은 고도

400마일(약 644km) 상공에 배치된다. 주파수 대역도 늘어나며 극궤도도 추가돼 서비스 범위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마존은 승인 조건으로 엄격한 시한을 제시 했다고 미 경제방송 CNBC는 전했다. 승인된 위성의 절반을 6년 내인 2032년 2월 10일까지, 나머지 전량을 2035년 2월 10일까지 궤도에 올려야 한다. 연합뉴스



공사 중인 고디 하우 국제대교.

자민당, 日총선에 짚은 총일수록 긍정 평가

63% “결과 좋아”

이상 남녀 1037명을 설문한 결과 이번 선거 결과가 ‘좋았다’는 응답자가 55%를 차지했으며 32%는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지난 8일 치러진 일본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승을 거둔 가운데 짚은 총일수록 이번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18~39세)에서 ‘좋았다’는 응답률이 63%로 가장 높았고 40~50대(58%), 60대 이상(4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1%)이 여성(49%)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도 67%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 의석이 총전 167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든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